

LGD 대학생 블로그 누적방문 1111만명 돌파

'D군의 This Play' 선물 이벤트 진행

LGD디스플레이는 공식 대학생 블로그 'D군의 This Play'가 개설 8년만에 누적 방문자 1111만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지속적인 글로벌 1등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숫자 1과 관련된 이벤트를 진행한다. 누적 방문자가 1111만 1111명을 돌파한 시점부터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댓글 1111개가 달리면 111명에게 선물을 전달한다.

D군의 This Play는 대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콘텐츠로 운영되는 블로그로 디스플레이 관련 IT트렌드는 물론 LG디스플레이 조직문화와 채용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내고 있다.

어려운 디스플레이 전문 지식을 대학생의



대학생 운영진들이 최신 디스플레이를 통해 IT정보들을 살펴보고 있다.

/LGD디스플레이

높이로 쉽게 설명해 LG디스플레이 입사를 원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실제 2018년 LG디스플레이에 입사한 사무직을 대

상으로 한 설문에서 약 98%가 'D군의 This Play'를 참고해 취업준비를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14일 경기도 용인 청덕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인근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기술연구소에 방문해 소름과 시험실을 둘러보며 자동차에 적용된 기술들을 직접 확인하며 신기해 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전국 사업장 '살아있는 과학교실'로

현대모비스가 전국 주요 사업장을 이용해 초등학교생에게 기초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과학교실을 진행한다.

현대모비스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인 '주니어 공학교실' 참가 학생들을 전국에 있는 주요 사업장에 초청해, 현장 견학과 과학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12개 초등학교 400여명 초등학교생과 교사가 초청 대상이며, 이번 주에 전국의 주요 사업장별로 하루 일정으로 각각 진행하고 있다.

주니어 공학교실은 기초적인 과학 원리들이 어떻게 실제 기술로 구현되는지 실습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초등학교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으로 현대모비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현대모비스 연구원이 전문 강사로 참여하며, 매달 전국 사업장 인근의 초등학교를 방문, 별도 제작한 교보재를 이용해 관련 기술이 적용된 미래 자동차 모형을 직접 제작한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주니어 공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이동과학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주니어 공학교실'로 전국의 초등학교로 혜택을 넓혔다. 올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모형자동차 제작을 교육하는 '현대모비스 청소년 공학 리더'도 새롭게 개최하는 등 교육대상을 확대했다.

/양성문 기자 ysw@

롯데멤버스 고객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롯데멤버스는 AI 어플리케이션 그룹 마이셀럽스와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음성 기반의 AI 큐레이션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L.POINT(이하 엘포인트) 회원들은 음성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말해' APP과 라이프스타일 포털 '익사이팅 L'을 통해 개인 취향별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4일 서울시 중구 통일로에 위치한 롯데멤버스 본사에서 진행된 '인공지능 및 빅데

이터를 활용한 신개념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제공' 업무협약식에는 롯데멤버스 강승하 대표와 마이셀럽스 신지현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이셀럽스는 이미 자체 AI 솔루션인 '빅데이터 스튜디오'를 통해, 업계 선두 기업과의 AI Transformation 제휴를 이끌며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롯데멤버스는 본 협약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검색 기술을 통해 회원들



롯데멤버스 강승하 대표이사(좌)와 마이셀럽스 신지현 대표(우)가 지난 14일 서울시 중구 롯데멤버스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제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멤버스

에게 취향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늘의 운세 8월 17일 (음 7월 7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자손이 새 인연을 데려오니 기쁘다. 60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었으니 뜻한 바를 무사히 달성. 72년생 격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84년생 시간은 금이니 허비하지 말고 활용을 잘 해야 한다.

소 49년생 야릇사람을 잘 보살피야 만사가 편하다. 61년생 기쁨과 슬픔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을 편하게. 73년생 마음이 우울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85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호랑이 50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62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려 하면 원망을 듣게 된다. 74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히 포기. 86년생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뎌라.

토끼 51년생 속이 상해도 내 자식이나 어쩌겠나. 63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치는 날. 75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오늘이 그날이다. 87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을 조심.

말 52년생 인맥을 이용하여 이로운 정보를 얻는다. 64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좋은 꿀을 얻지 못한다. 76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살임을 명심. 88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술술 잘 풀린다.

닭 53년생 파란색, 숫자 1이 오를 행운을 준다. 65년생 달빛이 찬란하니 좋은 옷을 입고 나가본다. 77년생 고집을 피우면 부모도 외면하는 법. 89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말 54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66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78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마음이 불편한 하루. 90년생 상대의 단점을 건드리면 나의 단점도 드러난다.

양 55년생 들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라. 67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일을 처리. 79년생 낙숫물에 비위가 돌리는 법이니 부단한 노력이 중요. 91년생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우 날.

원숭이 56년생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라. 68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안 가는 것이 좋다. 80년생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칠 수 있다. 92년생 노력의 결과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다.

닭 57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이니 서글퍼 마라. 69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된다. 81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이나 영양섭취는 자제. 93년생 금전 문제로 가족 간의 의견충돌을 주의.

개 58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70년생 입으로라도 웃으면 화가 물러날 것이다. 82년생 기대하던 것일수록 잘 살펴 실수가 없다. 94년생 과대포장은 상대를 기만하는 행동임을 명심.

돼지 59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잘 보살피라. 71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좀 지체. 83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참아야 한다. 95년생 머리만 민지 말고 노력을 해야 한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4	7	5
7	6			9			1	
	3	4			2	6		
8			9		3			4
			6	8			1	2
	9		4					6
1	4	7						
			2					

		1				7		
	5		4			7		6
		8		2		4		
	8		1		2		3	
5				4				1
	1		5		6			8
		2		6		1		
	6			9		1		4
		9				8		

스도쿠 정답

2	7	6	1	2	8	5	9	4
2	8	9	6	5	2	7	1	3
1	9	5	2	8	7	3	6	4
8	2	1	7	5	8	9	2	6
7	5	2	8	9	6	1	2	3
6	8	9	2	1	7	5	4	8
8	1	8	6	7	2	5	9	3
5	2	7	8	9	6	1	2	3
9	6	2	5	1	2	8	7	4
9	2	8	5	2	7	6	7	1
2	7	8	1	8	6	5	9	2
6	5	1	7	9	2	2	8	8
2	8	2	9	6	5	7	1	5
1	6	9	8	7	8	2	2	5
7	8	5	2	2	1	9	8	6
5	1	7	6	2	8	8	2	9
8	9	6	2	1	7	8	5	2
8	2	1	8	5	9	1	6	7

문제 제공 = **보너스**

김상회의 四季
사주에 절기가 있다

요즘처럼 유례없는 폭염으로 한반도가 뜨거운 열섬이 되어가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지구의 온난화 현상과 맞물려 이상고온으로 적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날씨가 바뀌는 차량의 증가와 운행은 대기 중으로 뜨거운 열기를 밤낮으로 내뿜고 화학재료인 아스팔트로부터의 지열은 실제 온도보다 더 높은 폭염을 선사하고 있다. 이렇듯 여름나기에 각별히 힘이 드는 것도 사실이 나 아무리 더워도 그 뜨거운 햇살을 자양분으로 삼아 과실은 더욱 달콤하게 농익고 벼와 곡식들은 알곡을 튼 실히 채운다. 여름이 오히려 덥지 않고 시원하다면 인간들의 여름나기는 수월할지 몰라도 그 해는 냉해로 인해 과실과 여러 작물의 풍작을 기대하진 그러다. 풍성한 가을을 위한 통과리엔 것이다. 더불어 더위에 맞설 것이 아니라 해가 강한 낮에는 외출이나 밭일 등 야외 일을 삼가면서 무리한 운동과 생각을 쉬는 것도 폭서를 피하는 지혜이듯 이런 생각으로 삶에 대처한다면 어려움도 분명 반감될 것이다. 굳이 뜨겁고 열기 많은 때 밭일을 하다 열사병에 걸려 허약한 사람들은 유명을 달리는 경우도 있다. 덥다고 무조건 차가운 음식만 찾다가 배탈이나 설사로 인해 몸을 상하거나 덥다고 바닷가를 찾아 해산물을 즐기다 상한 생선이나 조개류를 잘못 섭취해 패혈증과 같은 질병으로 졸지에 목숨까지 잃는 경우를 보면 더위에 임하는 지혜로운 대처가 절실해지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열치열이라는 방법으로 한 여름의 건강을 지켜주는 식생활 풍습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니겠는가?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람살이도 한 여름 폭염처럼 한 겨울 혹한처럼 견디기 힘들고 모질 때가 있다. 사주팔자의 구성 자체가 좋다 해도 반드시 어려운 때가 한 두 번쯤 운기에 섞여 있음을 분명 보게 된다. 전체 사주가 안 좋은 기운이 강하더라도 어느 한 때는 살만한 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좋고 안 좋은 때를 제대로 살필 수 있다면 마치 한 여름의 폭서도 조심하고 경계하면 몸과 마음을 상하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듯 인생의 길에 굴곡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겸손과 인내로 견뎌낼 때 오히려 흉이 변하여 복이 되는 게 마치 뜨거운 열기가 과실을 익게 하여 풍성한 결실을 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름이 덥지 않으면 오히려 냉해로 재앙이 되고 겨울이 춥지 않으면 다음 해 병충해가 심해지듯 특이한 인생의 길은 절기가 있기에 고난이 반드시 고난이 아닌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